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ume 15, Number 4, December, 2013: pp. 147~170
통상정보연구 제15권 4호 (2013년 12월 27일)

논문투고일자 : 2013. 11. 22
심사(수정)일 : 2013. 12. 14
게재확정일자 : 2013. 12. 20

한·페루 FTA 체결 이후 교역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de Structure after Korea-Peru FTA

박종석(Chong-Suk Park)
대구가톨릭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무역학과 부교수(제1저자)

이길남(Kil-Nam Lee)
가천대학교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교신저자)

목 차

Ⅰ. 서 론
Ⅱ. 한·페루 FTA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한·페루간의 교역현황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2011년에 한·페루간의 FTA가 발효되면서 양당사국은 협정 발효 이후 10년 이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남미지역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페루 내수시장의 점유율도 상승하게 되었다. 한국은 아연과 구리 등의 광물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승용차와 컬러 TV 등의 주력 품목을 페루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품목 중에서 컬러 TV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한국과 페루의 교역 및 투자환경을 살펴보면 제한된 수출품목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역시 다양한 산업분야가 아닌 광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양국사이의 교역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페루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한·페루 FTA, 교역 및 투자환경, 내수시장 점유율, 교역확대 방안

* 이 논문은 2013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을 밝힙니다.(GCU-2013-R362)

Ⅰ. 서 론

지난 2004년 한·칠레간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중남미지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칠레간의 FTA 발효 이후 양국간의 교역량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칠레의 FTA 확대정책에 따라 최근에는 시장선점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중남미지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중남미시장은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중남미지역은 전 세계 교역량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특히 페루는 전 세계 매장량을 기준으로 은 22%, 구리 13%, 아연 8%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페루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품목을 살펴보더라도 아연광, 동광 및 철강 등의 광물자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페루와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페루와의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페루와의 FTA 체결은 칠레에 이어 새로운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중남미시장진출의 확대라는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자원협력 및 확보를 위한 기회가 만들어졌다는데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페루 FTA 협정문 제20.8조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양당사국은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서의 더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제휴관계의 구축을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고 명시하여 한·페루 FTA가 양국의 교역량 확대만이 아닌 자원협력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한·페루 FTA 및 교역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대외교역관계에 있어서 페루와의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연구를 살펴보더라도 한·페루 양국간의 FTA에 관한 연구가 아닌 중남미지역의 FTA 추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페루는 2000년 이후부터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2011년부터는 칠레의 GDP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6%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으며 중남미지역내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칠레에 이어 중남미지역에서 두 번째로 페루와 FTA를 체결하였다. 양국간의 FTA는 그동안 한국이 체결한 FTA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FTA가 발효된지 2년에 불과하지만 양국간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시장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교역구조의 한계점으로 인해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페루의 FTA 확대정책에 따라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페루의 시장규모는 칠레에 비해 작지만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페루는 중남미지역시장에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페루 양국간의 FTA 체결로 인한 교역구조 변화의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페루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페루 FTA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양국간의 FTA 추진배경

한·페루 FTA는 지난 2005년 APEC 정상회담에서 똘레도(Toledo) 페루대통령이 한국측에 먼저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1] FTA 협상과정에서는 당사국들간의 산업과 무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경쟁적인 관계인지에 따라 당사국들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2] 한·페루 양국간의 경제 및 무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양국간의 교역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FTA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사이에 FTA 체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페루의 경우 1990년대부터 자국경제의 회복과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조치들을 철폐하고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3] 특히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FTA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FTA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4] 2003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FTA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타지역 국가와의 FTA 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한 페루는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002년 아시아 국가중 처음으로 태국과의 FTA 체결[5]을 시작으로 2010년 3월에는 페루와 중국간의 FTA가, 그리고 2011년 8월에는 한국과의 FTA가 각각 발효되었다.

1) 정철·임혜준·권기수, "한·페루 FTA 협상개시 의의 및 대응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8, No.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2.

2) 오문갑,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와 한국의 반덤핑제도 확대전략",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p.238.

3) Philip I. Levy, "Free Trade Foreign Polic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fall, 2011, p.61.;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무역규제조치들을 철폐하면서 소지역별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CEPAL, "Implicaciones fiscales de la liberalización del comercio hemisférico para Perú," 2007, p.1.

4) EIU, "Peru: Road to FTA ratifications," *Business Latin America*, Vol.42, No.37, 2007, p.1.

5) 페루는 중남미지역 국가중 유일하게 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Patthara Limsira, "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Protocol between Republic of Peru and the Kingdom of Thailand to Accelerate the Liberalization of Trade in Goods and Trade Facilitation,"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Vol.3, No.1, 2010, p.235.

페루와 태국간의 FTA는 2011년 12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에 이어 아시아지역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페루와의 FTA가 발효된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페루가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시아지역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술이전과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페루는 다른 남미국가들과는 달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6] 한편 한국의 경우에도 페루와의 교역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한 이유는 첫째, 중남미지역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교두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칠레와의 FTA를 통해 중남미지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지만 칠레의 FTA 미미하여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한 새로운 거래상대국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남미지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상대인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컬러 TV 제품에 있어서 한국과 경쟁중인 중국은 이미 페루와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승용차 부문에서 경쟁중인 일본 역시 페루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선점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페루와의 FTA 체결이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페루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연광, 동광 등의 광물자원이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페루와의 FTA 체결은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페루간의 FTA 체결은 양국의 교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원의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에 자원협력을 위한 FTA 체결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2-1〉 한 · 페루 FTA 추진 일지

년 도	내 용
2005.11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똘레도(Toledo) 페루대통령이 FTA 제안
2006.11	FTA 민간공동연구 시행 합의
2007.10	제1차 한·페루 공동연구회의 개최
2008.04 ~10.07	- 제2차 한·페루 공동연구회의 개최 - 민간공동연구종료 - 한·페루 FTA 공청회 개최
2009.01.21.~10.22	- 한·페루 FTA 사전준비회의 - 제1~4차 한·페루 FTA 협상개최
2010.08.30	한·페루 FTA 협상 타결
2011.08.01	한·페루 FTA 발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6) 정철·임혜준·권기수, 전게서, p.4.

2. 한·페루 FTA 상품 양허

한국과 페루는 FTA 협정을 통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하였다. <표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은 페루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품목 비중으로 84.5%는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5년 이내에 7% 그리고 10년 이내에 5.8%를 철폐하여 점진적으로 총 97.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페루의 경우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품목 비중으로 67.9%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하고 13.5%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그리고 17.5%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철폐하여 한국은 97.3%, 페루는 98.9%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즉시 철폐가 되는 품목의 비중에 있어서 한국이 페루보다 16.6%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FTA 체결 이전부터 페루에서 수입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를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페루시장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에 해당하는 컬러 TV, 승용차 등은 기존세율이 9%였으나 FTA의 체결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시장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한·페루 FTA에서는 대형 승용차와 중형 승용차에 대해 즉시철폐 및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되어있으나, 중국·페루간의 FTA에서는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7]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보더라도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2〉 한·페루 FTA 상품 양허 수준 비교

양허단계	한 국			페 루		
	품목수	품목	비중	품목수	품목	비중
즉시	10,044	아연광, 동광, 철광, 원유, 석탄, 승용차, 타이어 등	84.5%	5,001	컬러TV,화물자동차, 대형 승용차(3개 세 번) 일부 자동차부품 등	67.9%
3년	223	위스키, 비시킷, 통조림 등	1.9%	58	면도기, 항공기엔진	0.8%
4~5년	609	바나나, 코르크, 포도주 등	5.1%	936	중형승용차(3개 세 번), 맥주, 위스키 등	12.7%
소계	10,876		91.5%	5,995		81.3%
7~8년	170	옥수수, 소모사 등	1.4%	51	일부 철강제품, 황산	0.7%
10년	524	오징어, 아연괴, 합판 등	4.4%	1,240	냉장고, 신발류, 기타 승용차 등	16.8%
소계	11,570		97.3%	7,286		98.9%
10년 초과	202	삼겹살, 버터, 녹차 등	1.7%	79	쇠고기, 버터, 치즈 등	1.1%
계절관세	2	포도, 오렌지	0.0%	-	-	-
현행관세/양허제외	107	쇠고기, 고추, 마늘, 사과 등/쌀	0.9%	5	쌀	0.1%
총계	11,881		100%	7,370		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주: 한·페루FTA설명자료에서 재인용

7) http://www.fta.go.kr/pds/fta_korea/peru/peru1.pdf

한편 한국의 대외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감한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107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했다.[8] 특히 한국은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Agricultural Safeguard; ASG)[9]를 도입하였다. 한·페루 FTA 협정문에서는 "농업 긴급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 한편 원산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이나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입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일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11] 한편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에 합의하였다.[12]

Ⅲ. 한·페루간의 교역현황

1. 양국간 교역규모

지난 2002년 한·페루 양국간의 교역액은 총4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4억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수출입규모를 분석해 보면 수출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9.9%까지 상승하여 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의 경우에는 10억 달러를 나타내며 전년 대비 53.9%가 증가하였다. 2009년 한국의 대페루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9%로 감소한 이유는 세계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결과에 의한 것이지만, 2010년부터는 다시 수출이 47.2%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양국간의 FTA가 발효된 2011년에는 1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로 10억 달러대를 돌파하였다. FTA의 효과는 협정발효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해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13] 하지만 한·페루 FTA는 지

8) 권기수·박미숙, "한·페루 FTA 발효의 의의와 주요 활용 방안", 「KIEP오늘의 세계경제」, Vol.11, No.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6.
9) ASG 발동 가능 품목은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체다 치즈, 천연꿀, 맨더린, 녹두·팥 등 7개(14개 세번)이다. http://www.fta.go.kr/pds/fta_korea/peru/peru1.pdf
10) 한·페루 FTA 협정문 제2.14조.
11) 한·페루 FTA 협정문 제4.2조,http://www.fta.go.kr/pds/fta_korea/peru/peru1.pdf
12) 한·페루 FTA 협정문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
13) 정재화, "무역결합도를 활용한 FTA 효과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4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143.

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다른국가와의 FTA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었기 때문에 발효 2년에 불과하지만 교역상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한·칠레간의 교역량과 비교해 보더라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페루와의 FTA 체결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한국의 대페루 수출규모

(단위: 백만달러, %)

년도	금액	증가율	2012			2013(1월~8월)	
			월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3	965	-0.7	01	96	13.6	126	31.0
2012	1,473	7.7	02	111	30.0	121	9.0
2011	1,368	44.8	03	124	-14.3	131	5.7
2010	944	47.2	04	120	3.5	105	-12.1
2009	641	-10.9	05	138	24.6	113	-18.4
2008	720	54.5	06	154	37.2	120	-22.3
2007	466	29.9	07	122	14.6	130	6.1
2006	359	27.1	08	108	-16.1	120	11.5
2005	282	15.2	09	136	1.5	-	-
2004	245	19.9	10	126	0.3	-	-
2003	204	4.4	11	118	14.6	-	-
2002	196	4.3	12	120	2.6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1년 한·페루 FTA가 발효된 이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대페루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의 대페루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증가세와 감소세가 반복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페루에서 수입하고 있는 품목과 관련성이 있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자원과 농산물로서 특히 광물자원의 경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에 해당된다. 페루의 수출 주력 품목인 구리와 아연광 등의 광물자원은 페루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4] 한국의 대페루 주요 수입품목을 분석해 보더라도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동 품목의 국제시장 가격변동에 따라 수입규모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 한국의 대페루 수출금액이 감소한 것

14) Russi Daniela, Ana C. Gonzalez-Martinez, Jose Carlos Silva-Macher, Stefan Giljum, Joan Martinez-Alier and Maria Christina Vallejo, “Material flow in Latin America,”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Vol.12, No.5/6, 2008, p.709.

과는 달리 수입액은 오히려 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동년 페루의 경제성장률도 0.6%의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한·페루 FTA가 발효된 2011년에는 수입금액이 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87.7%가 증가하였다. 2012년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페루 수입액이 -15.9%로 감소한 이유는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 페루의 대외수출규모는 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전체적인 수출액은 1.4% 감소하였다.[15] 2013년에 들어서면서 대페루 수입액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양국간의 수출입 금액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한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한국의 대페루 수입규모

(단위: 백만달러, %)

년도	금액	증가율	2012			2013(1월~8월)	
			월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3	1,321	18.0	01	150	-40.6	203	35.8
2012	1,639	-15.9	02	187	9.7	103	-45.1
2011	1,950	87.7	03	91	-60.0	194	114.6
2010	1,039	13.0	04	126	-25.4	234	85.3
2009	919	1.7	05	172	-5.3	41	-75.9
2008	904	-13.1	06	46	-38.7	255	457.3
2007	1,040	53.9	07	207	-8.7	44	-78.7
2006	676	170.9	08	141	42.2	232	64.4
2005	249	-11.9	09	89	-57.2	-	-
2004	283	45.6	10	105	-27.7	-	-
2003	194	-5.0	11	182	50.4	-	-
2002	205	75.8	12	143	95.2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 품목별 교역규모

한국의 대페루 수출품목을 분석해 보면 승용차, 화물자동차, 합성수지, 컬러 TV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한·페루 FTA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0년에 2억 6천만 달러의 수출금액을 나타내었으나 양국사이의 FTA가 발효된 2011년에는 전년 대비 33.2% 증가한 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1년 페루시장에서의 승용차

15) CEPAL.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13, p.191.

판매는 14만 4천대로 한국은 FTA의 효과로 인해 22.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다.[16] 이후 2012년에 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4.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8월까지의 수출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승용차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페루의 승용차시장을 분석해 보면 일본과 한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사별로 승용차시장의 점유율을 분석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일본산 승용차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한국과의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추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합성수지의 경우 2010년에 7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실적이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8월까지 전년 대비 44.5% 증가한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컬러 TV의 경우에도 2010년에 6백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억 달러대를 돌파하였다. 비록 수출금액면에서 컬러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중국제품에 비해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나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오히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한국의 대페루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

품목	2010		2011		2012		2013(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승용차	266	128.4	355	33.2	512	44.2	330	3.9
화물자동차	105	66.7	144	36.8	116	-19.7	73	-12.6
합성수지	71	134.1	125	76.3	129	3.3	125	44.5
컬러TV	6	-78.5	108	1,828.2	139	28.4	61	-31.4
건설중장비	21	109.3	42	99.5	66	58.4	37	-22.7
기타정밀 화학원료	41	77.0	39	-5.5	48	23.7	33	2.0
타이어	16	32.9	21	34.6	24	14.4	17	-4.6
섬유기계	9	48.8	13	56.8	25	83.4	12	-20.9
자동차부품	21	18.9	29	37.7	32	10.3	23	14.3
기타석유 화학제품	19	51.1	26	33.0	26	-0.3	21	5.8
시멘트	13	556.0	13	-3.0	26	105.8	40	476.3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7	-40.7	13	74.3	32	144.4	16	-37.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16) 최기영, "FTA체결에 의한 중남미 자동차 수출 전망과 대응 방안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146.

한편 양국사이의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품목별 금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달리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크게 변화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페루 수입품목을 분석해 보면 광물자원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 아연광의 수입금액은 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7%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FTA가 발효된 2011년에는 30.6% 증가한 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은의 경우 2010년 1천 3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입금액이 2011년에는 무려 669.3% 증가한 9천 8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금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FTA에 따른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한·페루 FTA가 발효되기 이전부터 광물자원은 무관세가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페루 수입액은 FTA 발효에 따른 영향보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 및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광물자원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과실류의 수입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세인하에 따라 페루산 포도의 수입이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페루 FTA 체결 전에 포도의 경우 기존 관세가 45%였으나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2013년에는 18%가 되었기 때문에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한국의 대페루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품목	2010		2011		2012		2013(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동광	486	58.3	616	26.8	447	-27.4	213	-38.6
기타금속광물	192	13.7	424	120.8	516	21.6	212	-33.5
아연광	172	-9.7	225	30.6	273	21.4	149	-25.2
은	13	238.6	98	669.3	192	95.9	113	0.4
커피류	32	67.9	54	68.7	39	-27.8	20	-6.6
기타수산가공품	22	-5.2	52	136.5	56	7.8	29	-24.8
오징어	9	1.6	12	33.6	15	18.9	8	-8.9
동괴 및 스크랩	6	-78.4	11	72.1	61	480.6	25	-49.2
어육	7	53.2	6	-9.5	5	-18.8	6	90.4
과실류	0	-32.5	2	3,346.0	9	246.8	10	124.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양국간 교역구조 및 투자의 문제점

1) 페루의 FTA 확대 정책

한·페루 양국간의 교역량은 많지 않지만 FTA 체결 이후 교역량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페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페루시장에서 경쟁중인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아시아지역 국가 중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페루와 FTA를 체결한 중국의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중국의 페루시장 점유율은 18.5%로 미국에 이어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중 페루와의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광물자원 특히 구리에 대한 수입비중이 매우 높다.[17] 중남미지역 국가 중에서 페루의 대외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된 이유도 중국경제 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입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FTA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0년에는 3.64%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지만,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0.23% 증가한 3.8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페루와의 FTA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1년에 3.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FTA가 발효된 2012년에는 오히려 0.15% 감소한 3.45%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표 4-1〉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한 국	3.64	3.87	3.88
중 국	17.14	16.79	18.50
일 본	3.77	3.60	3.45

자료 : KOTRA

페루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제품은 컬러 TV이며 한국과 일본의 경쟁제품은 승용차이다. 일본이 페루와의 FTA 발효 이후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이유는 한·페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승용차의 판매실적이 증가하면서 일본산 승용차의 수출실적이

17) EIU, “Peru : China trade deal goes beyond tariff reductions,” Business Lain America, Vol.45, No.13, 2012, p.5.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한국산 승용차의 페루시장 점유율은 26.9%로 28.3%를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산 승용차에 비해 1.4%의 차이가 있었으나 FTA가 발효된 2011년에는 한국이 29.5%, 일본이 18.7%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한편 중국산 승용차의 경우 일본에 이어 18.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4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보면 거의 두 배 정도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8] 현재까지 한국제품의 페루 시장점유율은 FTA 체결로 인해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페루의 FTA 확대정책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는 자국경제의 성장과 중남미지역내에서 두 번째로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국들과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9] 한국이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이후 2007년 7.23%까지 상승했던 시장점유율이 칠레의 FTA 확대정책에 따라 2009년에는 5.9%까지 하락했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20]

2) 교역상품의 구조적인 문제

비록 한·페루 FTA 체결로 한국의 페루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역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과 관련해서 승용차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지에서 품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고차의 경우에도 페루는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 시 중고승용차에 대한 특혜관세를 제외하였지만 한국과의 FTA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이 페루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을 살펴보면 승용차, 컬러 TV 등 일부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지시장에서 중국, 일본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품목이기도 하다. 그동안 페루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이미지는 '품질은 좋으나 가격이 고가인 제품'으로 인식되어왔다. 한·페루 FTA 체결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시장진출이 더욱 용이해졌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제한된 품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페루가 중남미지역내에서 멕시코, 칠레에 이어 FTA 추진에 적극적[21]임을 고려할 때 한정된 수출 주력품목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역량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한국의 중남미 수출금액은 총 367억 달러

18) ARAPER, "Informe Estadistico Ⅰ Semestre 2013", 2013, p.17.
19) CEPAL, "Perfiles de Infraestructura y Transporte en América Latina. Caso Perú", 2012, pp.11~12.
20) 한국은 중국보다 먼저 칠레와 FTA를 체결하여 시장선점 효과를 얻었으나, 2006년에 한·칠레 FTA보다 관세혜택범위가 넓은 중·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 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21) 정철·임혜준·권기수, 전게서, p.4.

로 브라질이 102억 달러, 멕시코가 90억 달러, 칠레가 24억 달러, 페루가 14억 달러에 해당된다. 한국이 페루와 FTA를 체결한 이유는 수출 주력품목들의 교역량만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수출 주력 품목들이 FTA 체결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확보로 단기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페루시장을 선점하고 무역수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만이 아닌 시장특성에 맞는 교역품목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이 페루에서 수입하고 있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페루는 풍부한 광물자원 및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광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페루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 품목은 광물자원이다. 하지만 이들 품목은 한·페루 FTA 체결 이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FTA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품목의 특성상 국제시장가격 및 수요에 따라 수입금액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제한된 투자분야

현재 한국의 대페루 투자유형을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페루 FTA 발효 전인 2010년에 4천 5백만 달러를 광업에 투자하였으며 2013년 1월에서 6월까지 6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남미지역 투자가 전통적으로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페루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보다는 광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금액은 총 11억 달러로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투자비중이 가장 높지만 페루에 대한 투자와 같이 특정 업종 하나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의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광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페루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보다 광업에 집중된 이유는 양국사이의 교역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출의 증대보다는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와 공급을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페루 FTA가 그동안 한국이 체결한 FTA와 달리 자원협력을 위한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투자현황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페루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광업이외에 수산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페루중앙은행(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의 확대로 2012년에 15.2%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22] 2013년에도 11.9%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2)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 “Memoria 2012”, 2012, p.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페루 투자분야가 광업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현지 산업정책과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한국의 대페루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1월-6월)
농업, 임업 및 어업	0	1	0	0
광업	45	47	52	65
제조업	2	1	1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2	1	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교역구조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 수출 주력 품목의 시장점유율 확대

한국이 페루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 주력 품목들의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교역품목의 다변화를 통한 틈새시장의 진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페루시장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그동안 페루시장은 수도 리마(Lima)를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23] 이에 따라 페루정부는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안정화를 위해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쌍무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24] 중남미지역내에서 페루의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에 힘입어 소비증가률에 있어서는 2013년에 5.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남미의 최대 소비시장인 브라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5] IMF에 의하면 현재 페루의 경제규모는 칠레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지만 2018년에는 페루가 중남미경제의 상위권에 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6] 또한 페루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화에 힘입

23) Roberto Urrunaga and Carlos Aparicio, “Infraestructura y crecimiento económico en el Perú,” Revista CEPAL, No.107, CEPAL, 2012, p.169.

24) Mario D. Tello, “Peru: Integration, sectoral specialization and synchronization with international gross domestic productcycles,” *CEPAL Review*, No.106, ECLAC, 2012, p.90.

25) http://www.camaraperuchile.org/boletin/archivos/Gestion080213-2.pdf

26) http://www.imf.org/external/pubs/ft/scr/2013/cr1346.pdf

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보다는 품질을 더욱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규모만을 평가해서 교역상품을 제한하기 보다는 시장특성에 맞는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페루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은 저품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위조상품에 대한 적발이 자주 발생되면서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27] 이에 반해 한국산 제품은 고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으며[28] 페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승용차와 컬러 TV의 수출이 급증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페루의 승용차시장을 분석해 보면 2011년에 수도 리마(Lima)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중이 74.2%, 비수도권이 25.8%로 수도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았으나 2013년에는 지방경제의 성장으로 수도 리마가 69.6%, 비수도권이 30.4%의 판매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29] 현재 한국 승용차의 페루시장 점유율이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브랜드 순위에 의한 점유율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토요다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의 경우 한국산 승용차에 비해 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페루시장에서 승용차 판매에 대한 국가별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페루의 자동차협회(Asociación de Representantes Automotrices del Perú : ARAPER)에 따르면 2013년 한국산 승용차의 판매율은 28.6%로 19.1%를 기록한 일본보다 9.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 한편 페루의 시장조사기관(Growth From Knowledge : GFK)에 따르면 승용차와 달리 가전제품의 경우 지역별 판매 비중에 있어서 수도에서의 판매 비중이 54%로 비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1] 한·페루 FTA 체결에 따른 수혜 품목인 컬러 TV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고품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장선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인 승용차와 컬러 TV의 경우 현지시장 A/S망의 구축을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면 안정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7) http://www.peruenvideos.com/en-verdad-productos-chinos-son-mala-calidad/

28) 한국산 제품은 일본제품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하고 중국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품질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페루가전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laudia Paan, “las marcas coreanas lideran el mercado peruano de electrodomesticos”, El Comercio.pe, 2012, 3.7/http://elcomercio.pe/economia/1411434/noticia-marcas-coreanas-lideran-mercado-peruano-electrodomesticos

29) ARAPER, op. cit., p.16.

30) http://www.araper.pe/index.php?id=noticia&code=34

31) http://elcomercio.pe/economia/1496372/noticia-provincias-generan-46-ventas-electrodomesticos-sectoral

2) 페루의 산업육성 정책에 따른 수출품목 발굴

다음으로 페루의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2012년 페루의 건설업은 15.2%의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013년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중장비에 대한 수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3년 8월까지 건설중장비의 수출액은 3천 7백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페루정부의 대규모 건설 및 탐사프로젝트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2] 2011년을 기준으로 페루의 건설중장비(HS 8429) 시장은 미국이 35.9%, 브라질이 19.3%, 일본이 13.3% 한국이 4.5%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조사별로는 Caterpillar사의 시장점유율이 39.1%로 가장 높은데 이는 현지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Komatsu사는 5.5% 유럽의 Volvo사는 7.4% 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격이 고가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33] 국내 건설중장비 제품의 경우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페루 건설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aterpillar사와 같이 현지 대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진출을 고려하고 제품의 특성상 부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페루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페루정부는 ADP 2.0(Peruvian Digital Agenda 2.0)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향상시켜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4] 이와 같은 페루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정책에 따라 인터넷의 보급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페루의 인터넷 사용자는 1,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0만 명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페루 전자상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은 총8억 달러로 중남미지역에서 3위의 시장규모를 차지하고 있다.[35] 하지만 페루 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보안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지역의 전자상거래시장에 있어서 거래활성화의 대표적인 장애요인이 바로 대금결제에 관한 보안문제이다.[36] 한·페루 FTA 협정문에서는 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규정[37]하였고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중소기업의 협력

32) 페루는 주택건설, 항만, 도로 및 가스관 신설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33)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건설기계산업」, Vol.92, 2012, pp.60-61.
34) 한국인터넷진흥원, 「페루정보통신(ICT)·방송정책보고서」, 2003, p.10.
35) 중남미지역에서 최대의 전자상거래시장은 브라질과 멕시코로 70%의 시장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CEPAL, “Economia digital para el cambio estructural y la igualdad,” 2013, p.14.
36) Wilson Peres and Martin Hilbert, “Information Societ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2010, p.256.
37) 한·페루 FTA 협정문 제14.9조

강화에 대해서도 규정[38]하고 있는 만큼 보안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페루정부의 의료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제약시장의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백신과 같은 의약품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제품은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을 목표로 개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기준세율 9%인 백신의 경우 2015년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출전망이 밝은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3) 투자협력방안의 확대

한국의 대페루 주요 수입품목이 광물자원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페루는 다른 중남미지역 국가에 비해 금융시장이나 외국인투자 제도가 개방되어 있는 편이며 2012년에는 중남미지역에서 투자환경이 가장 유리한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다.[39] 특히 페루는 외국인투자촉진법(Ley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 Decreto Legislativo)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FTA를 통한 외자유치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자원 확보를 위해 광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까지 투자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40]

한·페루 FTA 협정문에서는 “각 당사국에서는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고 규정[41]하며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1994년에 한·페루간에 발효된 투자협정보다 광범위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42] 한·페루 FTA 협정에서 투자자의 정의는 “다른

38) 한·페루 FTA 협정문 제20.4조

39) 2012년 페루의 외자유치금액은 1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7%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40) Sebastian Herreros, “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 Latin American Perspective,” ECLAC, 2011, p.23.

41) 한·페루 FTA 협정문 제9.3조

42)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 제2조에서는 투자의 증진과 보호에 관해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투자는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가 부여되며,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페루 FTA 협정문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하거나,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43]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거의 투자협정과 달리 FTA 협정문에서는 투자자의 범위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44]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페루 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에너지·광물 자원협력 조항[45]을 통해 양국은 원유와 가스의 탐사, 채굴 및 생산에 협력하고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생산, 제련, 정제, 가공 및 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력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원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조항은 그동안 한국이 체결한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산업에 대한 대페루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페루 FTA 협정문에서는 "양당사국은 어류와 수산물의 사회적 및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의 협력을 위한 투자를 증진할 것"으로 규정[46]하고 있다. 페루는 광물자원과 함께 풍부한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은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으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중남미지역시장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페루 FTA는 양국간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페루의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페루와의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역제품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진출확대와 함께 자원개발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중남미지역과의 FTA 추진 확대

한국이 칠레에 이어 페루와 FTA를 체결한 이유는 중남미지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페루 FTA 체결 이후

43) 한·페루 FTA 협정문 제9.18조
44) 1994년 발효된 한·페루 투자협정에서는 투자자의 정의를 "법률에 의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동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조직 또는 구성된 회사, 상사, 조직체, 협회"로 규정하고 있다.
45) 한·페루 FTA 협정문 제20.8조
46) 한·페루 FTA 협정문 제20.5조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비중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안정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경쟁력 강화 및 다변화와 함께 페루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페루 외무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에 따르면 그동안 페루는 시장개방정책을 통해 19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2013년에 과테말라와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고 현재는 터키와의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47]

〈표 4-3〉 페루의 FTA 추진현황

FTA 발효국	FTA 체결국	FTA 협상진행
WTO, 안데스공동체(Comunidad Andin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쿠바, APEC, 칠레,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EFTA, 한국, 태국, 일본, 파나마, EU,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ifico)	도하개발아젠다(Programa DOHA para el desarrollo), TTP(Acuerdo de Asociación Transpacifico),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자료 :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

페루의 대외 수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페루는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FTA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페루는 안데스공동체(Comunidad Andina)가입[48]을 시작으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자국산업의 발전 및 고용의 증대를 기대하였다. 특히 페루는 미주지역을 벗어나 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면서 한국, 중국 및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현재 한국은 페루의 대외교역국가 중 7위의 수출입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49] 하지만 페루의 FTA추진 확대정책에 따라 페루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 및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ifico)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페루의 FTA 확대정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가적

47) http://www.acuerdoscomerciales.gob.pe/

48) 1969년 안데안 조약으로 불리는 카르따헤나 협정(Cartagena Agreement)에 서명함으로써 창설된 안데스공동체는 출범 후 10년 이내에 관세동맹의 형태로 발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Gina E. Acosta Rojas, Germán Calfat and Renato G. Flores Jr.,"Trade and Infrastructure in the Andean Community," Cepal Review, No.90, ECLAC, 2006, p.44.;José E. Durán Lima, Carlos J. de Miguel y Andrés R. Schuschny, "Acuerdos de libre comercio entre los paises andinos y los Estados Unidos:¿Cuánto se puede esperar de ellos?," CEPAL, 2007, p.13.

49) http://www.mincetur.gob.pe/newweb/Portals/0/documentos/comercio/RM_Expo_Setiembre_2013.pdf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남미지역에서 최대의 경제통합체로 인구 2억 8천 만명의 시장규모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남미공동시장과의 FTA 체결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공식적인 협상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2012년 한국의 중남미지역 전체 수출액인 367억 달러 중에서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수출액은 총116억 달러로 3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9월까지 3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한국이 페루와의 FTA 체결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자원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미공동시장과 같은 거대 통합체와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다변화정책을 통해 중남미지역과 같은 신흥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를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칠레에 이어 페루와의 FTA 체결을 통해 중남미지역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비록 칠레와 비교했을 때 페루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서 페루는 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페루 FTA 체결 이후 양국사이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대페루 수출품목이 수입품목에 비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페루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품목이 대부분 원자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재의 경우 FTA 체결 이전부터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하여 한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 페루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한국의 수출 품목은 승용차와 컬러 TV 등의 제품이지만 시장선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페루정부의 산업정책 및 시장 변화를 분석하여 품목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페루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대페루 투자비중에 있어서 광업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것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투자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국이 시장규모가 작으며 교역규모가 적은 페루와 FTA를 체결한 주된 목적이 안

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중남미지역에서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페루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이 중남미지역시장에 대한 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미공동시장과의 FTA 체결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페루 FTA 체결 이후 교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교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양국사이의 교역현황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페루 FTA에 따른 양국의 교역구조 현황을 단기적으로 분석했을 때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 있지만 한국이 페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수출품목보다는 현지시장동향과 특성에 적합한 품목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페루의 FTA에 확대정책을 감안한 중남미지역과의 추가적인 FTA체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페루시장을 활용하여 중남미지역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권기수·박미숙, “한·페루 FTA 발효의 의의와 주요 활용 방안”, 「KIEP오늘의 세계경제」, Vol.11, No.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6.

오문갑,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와 한국의 반덤핑제도 확대전략”,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p.238.

정재화, “무역결합도를 활용한 FTA 효과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4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143.

정철·임혜준·권기수, “한·페루 FTA 협상개시 의의 및 대응방향”, 「KIEP오늘의 세계경제」, Vol.8, No.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2.

최기영, “FTA체결에 의한 중남미 자동차 수출 전망과 대응 방안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146.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건설기계산업」, Vol. 92, 2012, pp.60～61.

한국인터넷진흥원, 「페루정보통신(ICT)·방송정책보고서」, 2003, p.10.

Acosta Rojas, Gina E., Germán Calfat and Renato G. Flores Jr.,“Trade and Infrastructure in the

Andean Community," *Cepal Review*, No.90, ECLAC, 2006, p.44.

ARAPER, "Informe Estadistico Ⅰ Semestre 2013", 2013, p.17.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 "Memoria 2012", 2012, p.23.

CEPAL.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13, p.191.

CEPAL, "Economia digital para el cambio estructural y la igualdad," 2013, p.14.

CEPAL, "Implicaciones fiscales de la liberalización del comercio hemisférico para Perú," 2007, p.1.

CEPAL, "Perfiles de Infraestructura y Transporte en América Latina. Caso Perú", 2012, pp.11～12.

Daniela, Russi, Ana C. Gonzalez-Martinez, Jose Carlos Silva-Macher, Stefan Giljum, Joan Martinez-Alier and Maria Christina Vallejo, "Material flow in Latin America,"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Vol.12, No.5/6, 2008, p.709.

EIU, "Peru: Road to FTA ratifications," *Business Latin America*, Vol.42, No.37, 2007, p.1.

EIU, "Peru : China trade deal goes beyond tariff reductions," *Business Lain America,* Vol.45, No.13, 2012, p.5.

Herreros, Sebastian, "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 Latin American Perspective," ECLAC, 2011, p.23.

Levy, Philip I., "Free Trade Foreign Polic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fall, 2011, p.61.

Lima, José E. Durán, Carlos J. de Miguel y Andrés R. Schuschny, "Acuerdos de libre comercio entre los paises andinos y los Estados Unidos:¿Cuánto se puede esperar de ellos?," CEPAL, 2007, p.13.

Limsira, Patthara, "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Protocol between Republic of Peru and the Kingdom of Thailand to Accelerate the Liberalization of Trade in Goods and Trade Facilitation,"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Vol.3, No.1, 2010, p.235.

Peres, Wilson and Martin Hilbert, "Information Societ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2010, p.256.

Tello, Mario D., "Peru: Integration, sectoral specialization and synchronization with international gross domestic productcycles," *CEPAL Review,* No.106, ECLAC, 2012, p.90.

Urrunaga, Roberto and Carlos Aparicio, "Infraestructura y crecimiento económico en el Perú," *Revista CEPAL*, No.107, CEPAL, 2012, p.169.

http://www.acuerdoscomerciales.gob.pe/

http://www.araper.pe/index.php?id=noticia&code=34

http://www.camaraperuchile.org/boletin/archivos/Gestion080213-2.pdf

http://elcomercio.pe/economia/1496372/noticia-provincias-generan-46-ventas-electrodomesticos-sectorretail

http://elcomercio.pe/economia/1411434/noticia-marcas-coreanas-lideran-mercado-peruano-electrodomesticos

http://www.fta.go.kr/pds/fta_korea/peru/peru1.pdf

http://www.imf.org/external/pubs/ft/scr/2013/cr1346.pdf

http://www.mincetur.gob.pe/newweb/Portals/0/documentos/comercio/RM_Expo_Setiembre_2013.pdf

http://www.peruenvideos.com/en-verdad-productos-chinos-son-mala-calidad/

ABSTRACT

A Study on Trade Structure after Korea-Peru FTA

Chong-Suk Park* · Kil-Nam Lee**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Peru entered into force in 2011. Under the agreement, both countries will eliminated all tariffs within ten years after it takes effect. The Korea-Peru Free Trade Agreement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ly boosted Korea's exports to the South American state, as well as its relative share in the local import market. Korea mainly imports resources such as zinc and copper, and exports such goods as passenger car and color televisions. The FTA opens up a larger market for Korean home appliances like color televisions. Korea's trade with Peru has been mainly about concentrated investment into mining and exporting limited variety of export items. This paper analyzes the recent trends of problems of trade between Korea and Peru and suggests solutions for boosting trade to provide proper strategic guidelines for Korea that are planning to expand to Peruvian market.

Key Words : Ko-Pe FTA, trade and investment, local import market, trade cooperatio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achon University